

**주님 부활
 대축일**

2 0 2 6
 0 4
 0 5

주보



입당송 시편 139(138),18.5-6 참조

저는 다시 살아나, 여전히 당신 안에 있나이다. 알렐루야. 제 위에 당신 손을 얹어 주셨나이다. 알렐루야. 당신 지혜는 놀라운 일 이루셨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행전 10,34-37.43-43

화답송 시편 118(117),1-2,16-17.22-23(◎ 24)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제2독서 콜로새서 3,1-4

부속가

| | | | |
|------|------|------|-------|
| 파스카 | 희생제물 | 우리모두 | 찬미하세. |
| 그리스도 | 죄인들을 | 아버지께 | 화해시켜 |
| 무죄하신 | 어린양이 | 양떼들을 | 구하셨네 |
| 죽음생명 | 싸움에서 | 참혹하게 | 돌아가신 |
| 불사불멸 | 용사께서 | 다시살아 | 다스리네. |
| 마리아 | 말하여라 | 무엇을 | 보았는지. |
| 살아나신 | 주님무덤 | 부활하신 | 주님영광 |
| 목격자 | 천사들과 | 수의염포 | 난보았네. |
| 그리스도 | 나의희망 | 죽음에서 | 부활했네. |
| 너희보다 | 먼저앞서 | 갈릴래아 | 가시리라. |
| 그리스도 | 부활하심 | 저희군계 | 믿사오니 |
| 승리하신 | 임금님 | 자비를 | 베푸소서. |

복음 환호송 1코린 5,7.8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알렐루야.

복음 요한 20,1-9

영성체송 1코린 5,7-8 참조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Q 세상은 여전히 정의보다는 불의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조금 더 이기적으로 약삭빠르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을 넘어서는 희망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A 현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걸 그냥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눈은 기껏 전체의 일부분만 볼 수 있을 뿐이며, 우리 머리는 진리의 한 조각만 겨우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시간에 매여있는 우리 눈은 죽음이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 탄생일임을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신학자 폰 발타사르(H. von Balthasar)는 하느님의 구원역사를 '드라마'로 이해합니다. 모든 드라마에는 반드시 극적인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하느님 구원드라마의 장치는 십자가 죽음을 부활로 바꾸어놓은 반전에 있습니다. 이 반전의 힘은 대개 그저 눈앞에는 감춰져 있고, 현실에는 복선만 살짝 깔려있습니다.

구원드라마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뒤바꿔 놓으시는 하느님의 반전의 힘이 주된 스토리입니다. 이 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사랑과 더불어 우리 신앙의 기본축입니다. 교회는 이 셋을 향주덕(向主德)이라 하여, 하느님께 나아가는 지름길로 가르칩니다. 신앙은 부조리한 것을 믿는 힘이며, 반전은 그 부조리를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반전이 있는 드라마라야 재미있습니다.

(홍경완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학장 mederico@cup.ac.kr)

기도지향

교황님 4월 지향 기도

<위기를 겪는 사제들>

성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제들이 필요한 동반을 얻고, 공동체가 이해와 기도로 그들에게 힘을 보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026년 과달루페 성모님께 본당 공동체를 봉헌하는 기도지향

- 1) 하느님 말씀을 통한 영적성장을 위하여
- 2) 내면의 상처 치유와 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의 극복을 위하여
- 3) 겸손으로 서로 섬김을 위하여
- 4) 성사생활 참여를 어려워하는 신자들을 위하여
- 5) 예비신자 입교와 새 신자들을 환대하기 위하여

| 3월 | 목주기도 | 성경읽기 | 평일미사 | 희생, 봉사, 자선 |
|----|-------|------|------|------------|
| 1주 | 627 | 6 | 4 | 67 |
| 2주 | 616 | 32 | 8 | 61 |
| 3주 | 650 | 6 | 2 | 1 |
| 4주 | 1,300 | 78 | 19 | 55 |
| 합계 | 3,139 | 122 | 33 | 184 |

1. 부활을 축하합니다

죄와 죽음에 갇혀있는 인간을 사랑과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이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마련해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2. 봉사에 감사합니다

파스카 성삼일과 부활 전례를 위해 봉사해주신 전례분과, 성가대, 복사단, 독서단, 꽃꽂이 봉사자 분들께 감사드리고, 부활음식 준비에 수고해주신 성모회와 조별 담당자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3. 성경공부 그룹나눔

- 일시 : 사순시기 부터 월 1회, 조별 시간에 맞춤
- 장소 : 성당 or 조의 가정
- 조편성 : 서로 시간이 맞는 인원 중심으로 2-5명

4.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 "셀"(Cell) 기도 모임 안내

- 매주 금 09:30 미사 후 "셀(Cell)"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 매주 주일 12:00 "셀(Cell)" 기도 모임도 시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5. 2026년 과달루페 성모님께 기도 봉헌

매주 게시판에 구역별로 기도를 집계하여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 성경읽기의 경우 20분 단위로(읽기 or 구절 묵상) 1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6. 일회용품 절감 위한 개인 텀블러 사용

한해 종이컵 사용 비용만으로 200불이 지출이 되고 있어, 일회용품 절감이 필요하오니 개인 텀블러를 성당에 비치하거나 소지하여 이용 바랍니다.

7. 과달루페 성지순례

- 일시 : 11월 16일(월)-19일(목)
- 장소 : 과달루페 성모성지 (멕시코 시티)
- 신청 : 인원 파악을 위해 앤디 대건 안드레아 사목회 서기님께 신청바랍니다.

전례안내

전례봉사자(독서) 안내

| 4월 5일 주님 부활 대축일 | 4월 12일 부활 제2주일 |
|-----------------------------------|-------------------------------------|
| 제1독서 : 김상우 아우스딩 제2독서 : 김인선 아네스 | 제1독서 : 정석건 대건안드레아 제2독서 : 박기연 에스더 |

재정소식

천주교 벤투라 성당 공동체는 본당 신자들의 아낌없는 봉헌에 의해 유지되고 성장합니다. 이웃 사랑 계명과 교회법이 요청하는 대로 자선과 희사를 순수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 2026년 | 우리들의 정성 | | | | 주일미사/ 평일미사 | | |
|--------|---------|-------------------|---------|----------|------------|----|------|
| | 교무금 | 헌금 | 기부금/기타 | 합계 | 본당 | 공소 | 합계 |
| 3월 1일 | \$3,900 | \$315 공소 \$150 | \$1,120 | \$5,485 | 31/7 | 6 | 44 |
| 3월 8일 | \$500 | \$380 공소 \$20 | \$100 | \$1,000 | 35/7 | | 35/7 |
| 3월 15일 | \$1,400 | \$319 공소 \$370 | \$1,300 | \$3,389 | 31/6 | 6 | 37/6 |
| 3월 22일 | \$500 | \$305 | \$150 | \$955 | 26/4 | | 26/4 |
| 3월 29일 | \$400 | \$265 공소 \$190 | | \$855 | 26/6 | 8 | 34/6 |
| 합계 | \$6,300 | \$1,859 | \$2,670 | \$10,829 | | | |

교무금 현황 정소영(1,2), 한혜정(3,4)